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 마을기업 로컬푸드로 만나다!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신 영 현

벌써부터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초록빛 자연을 찾게 되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에 딱 어울리게, 지난 4월부터 초록빛 자연의 푸르름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집근처 공원에서 즐거운 나들이를 겸해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까지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려 지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우리지역 천안의 마을기업 및 친환경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및 천안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등이 관내 우수 농가들을 선정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봄맞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그것이다.

올해 첫 행사로 지난 4월16일 천안 불당동 능수버들공원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주말을 맞아 갑자기 뜨거워진 한낮의 햇살에도 수백명의 시민들이 장터를 찾아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로컬푸드와 다육이 등 다양한 상품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봄맞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올해 충남도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천안에서 유일하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풍세지역의 태학산녹색마을 농민들이 생산한 맛있고 싱싱한 오이와 호박, 양배추 등 다양한 농산물과 아바사랑팜 치유체험농장의 자연유정란, 다육의미치다 농장의 예쁘고 화려한 다육이들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로컬푸드 행사

또한, 올해 처음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장터 한켠에 마련된, 로컬푸드를 활용한 푸드테라피 체험과 정상숙 작가의 펜끝으로 만나는 로컬푸드 그림그리기 및 김미희 작가와 함께하는 시쓰기 등 다양한 어린이 로컬푸드 체험행사도 함께 열려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로컬푸드의 농산물들이 싱싱하고 가격까지 저렴해 깜짝 놀랐으며 앞으로도 집근처에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4월과 5월 불당동과 청수동 가온초 후문 앞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는 로컬장터에는 매회 천안시 로컬에서 생산된 싱싱한 유기농 딸기와 인삼, 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안내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당동과 청수동에서 격주로 계속 열릴 예정인데 우리 천안 지역에서 재배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농가 중 연 초 사전심사를 통해 추진단에서 직접 선발한 우수 농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 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